

KIA 양현종, 두번째 방어율왕 가능할까?

KIA 타이거즈 좌완 에이스 양현종(31)이 생애 두 번째 방어율왕에 오르는 것일까?

평균자책점 2.29을 기록하고 시즌을 조기에 마감한 양현종은 추격자 두산베어스 에이스 조쉬 린드블럼(32)의 등판 결과를 기다리고 있다. 린드블럼이 후투한다면 1위는 어려웠다. 그러나 린드블럼이 격자를 좁히지 못했다. 이제는 마지막 1경기에 등판에 따라 타이틀이 결정된다.

린드블럼은 지난 22일 22일 잠실야구장에서 열린 LG 트윈스와의 경기에 선발 등판해 6이닝 7피안타 1볼넷 8탈삼진 2실점을 기록했다. 1회 2점을 내준 것이 뼈아팠다. 시즌 평균자책점은 종전 2.36에서 2.38로 약간 올라갔다. 양현종과의 격차는 0.09까지 벌어졌다.

린드블럼은 8월까지 ERA 2.12로 1위를 질주하고 있었다. 일찌감치 20승을 채운데다 탈삼진, 승률까지 1위를 달리고 있어 4관왕에 유력했다. 그러나 9월에 주춤했다. 3경기에 등판해 ERA 4.66으로 부진했다. 중요한 타이틀인 방어율에서 거센 추격전을 벌인 1위 자리를 내주었다.

평균자책점 2.29 기록 시즌 조기 마감
두산 린드블럼, 현재 ERA 2.38 2위
팀 남은 6경기 중 1경기 등판 예정
7⅓이닝 무실점 기록해야 역전 가능
양현종 “나도 사람인지라 욕심 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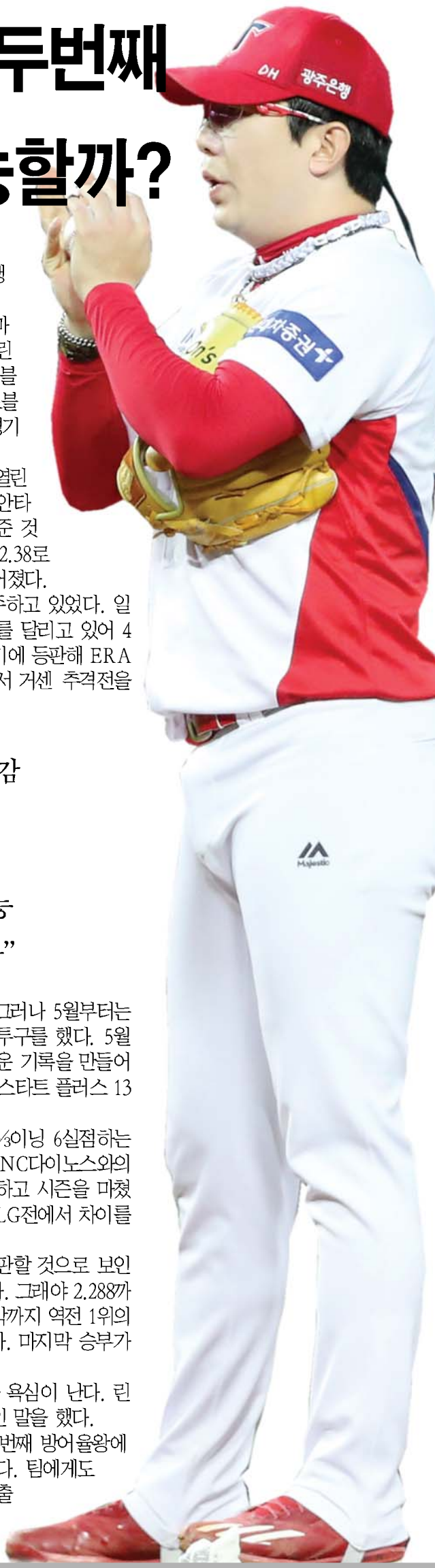
양현종은 4월까지 8점대 ERA에 그쳤다. 그러나 5월부터는 에이스 본능을 회복하더니 KBO리그 최고의 투구를 했다. 5월 이후 23경기에 등판해 평균자책점 1.17의 놀라운 기록을 만들어 냈다. 완봉 2회 포함 퀄리티스타트 20회, 퀄리티스타트 플러스 13회의 호투를 펼쳤다.

지난 16일 린드블럼이 키움과의 경기에서 7⅓이닝 6실점하는 바람에 기어코 평균자책점 1위에 올랐다. 17일 NC다이노스와의 경기에서 마지막으로 등판해 5이닝 2실점을 기록하고 시즌을 마쳤다. 공은 린드블럼에게 던진 셈이었다. 그러나 LG전에서 차이를 좁히지 못했다.

린드블럼은 팀의 남은 6경기에서 1경기에 등판할 것으로 보인다. 7⅓이닝 무자책을 기록해야 역전이 가능하다. 그래야 2.288까지 낮출 수 있고 역전에 성공한다. 두산도 마지막까지 역전 1위의 꿈을 버릴 수 없어 린드블럼의 등판이 필요하다. 마지막 승부가 남아있다.

양현종은 방어율왕에 대해 “나도 사람인지라 욕심이 난다. 린드블럼을 상대하는 팀을 응원하겠다”고 농담섞인 말을 했다.

만일 욕심을 이룬다면 지난 2015년 이후 두 번째 방어율왕에 오른다. 이미 자신의 역대 최저 ERA에 성공했다. 팀에게도 도루 박찬호(38개)와 두 명의 타이틀을 홀더를 배출하는 일 있어서 관심이 남다르다.



‘극적 역전골’ 포항 완델손, K리그1 30라운드 MVP

태풍으로 연기 울산-강원, 경남-전북전 오는 10월2일 개최 예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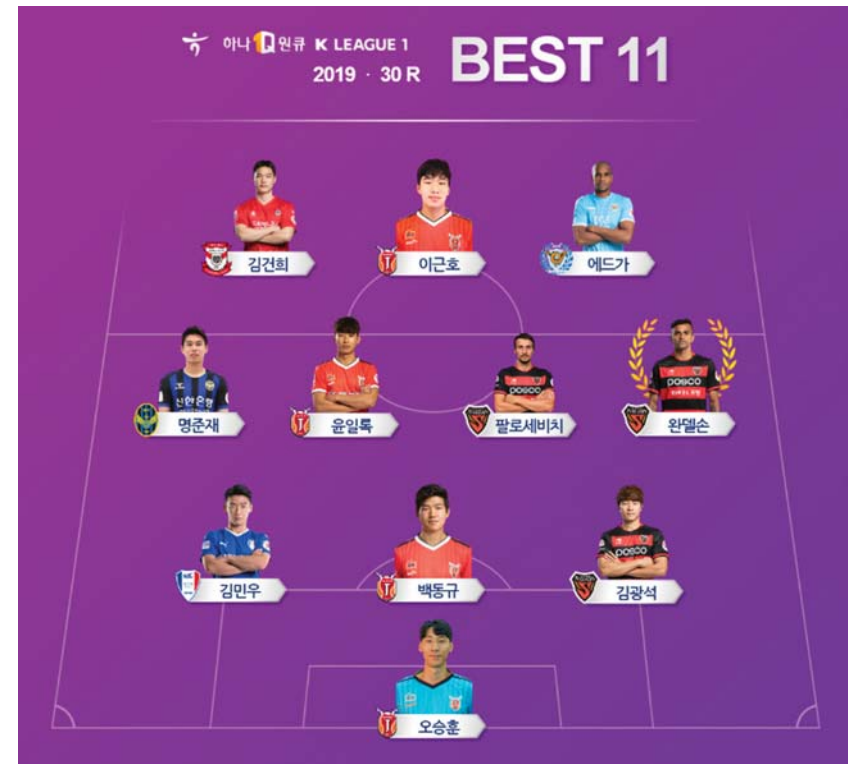
후반 막판 극적인 역전골로 포항 스틸러스의 상위스플릿 진출 희망을 이어간 완델손이 K리그1 30라운드 MVP에 선정됐다.

한국프로축구연맹은 24일 ‘하나원큐 K리그1 2019’ 30라운드 MVP에 완델손을 선정했다고 밝혔다.

완델손은 지난 21일 포항스틸야드에서 열린 FC서울과의 홈 경기에서 후반 42분 이광혁이 올린 땅볼 크로스를 문전 앞에서 그대로 오른발 슈팅으로 연결, 극적인 역전골을 기록해 팀의 2-1 승리를 이끌었다.

완델손의 골로 승점 3점을 챙긴 포항은 상위스플릿 진출 마지막인 6위에 올라 있는 수원 삼성(10승10무10패·승점 40)에 승점 1점 뒤진 8위(11승6무13패·승점 39)를 유지했다.

이날 포항과 수원의 경기는 종료 10분 전 3골을 주고 받으며 BEST 매치에 꼽혔고, 윤빛가람의



복귀에 힘입어 10경기 만에 승리한 제주 유나이티드가 이번 라운드 BEST 팀에 선정됐다.

한편 태풍으로 연기된 30라운드 울산현대-강원FC전, 경남FC-전북현대전은 오는 10월2일 치러진다.

메시, FIFA 올해의 선수 등극 ‘6회 최다’...호날두 ‘노쇼’

손흥민, 동료 해리 케인 선택...벤투 감독은 반 다이크

리오넬 메시와 크리스티아누 호날두. 현재 세계 축구를 양분하고 있는 슈퍼스타의 희비가 엇갈렸다.

아르헨티나와 바르셀로나를 대표하는 축구 스타 메시가 포르투갈의 라이벌 호날두(유벤투스)와 수비수로서 새로운 페이지를 작성한 네덜란드의 벼락 반 다이크(리버풀)를 제치고 세계 최고의 축구 선수로 공인됐다.

메시는 24일 오전(한국시간) 이탈리아 밀라노의 라 스칼라 극장에서 열린 ‘더 베스트 FIFA 풋볼 어워즈 2019’ 시상식에서 ‘FIFA 올해의 선수’로 뽑혔다.

메시는 각국 축구대표팀의 감독과 주장 그리고 미디어의 투표(1~3순위 합계)에서 총 46점을 기록해 반 다이크(38점)와 호날두(36점)를 따돌렸다.

이로써 메시는 2009, 2010, 2011, 2012, 2015년에 이어 통산 6번째 ‘올해의 선수’로 뽑히면서 5

차례 수상(2008, 2013, 2014, 2016, 2017)의 호날두를 따돌리고 역대 최다 수상자에 올랐다.

2016년과 2017년 연속 호날두가 수상했고 지난해에는 크로아티아의 2018 러시아 월드컵 준우승을 이끈 루카 모드리치가 주인공에 올랐는데, 메시가 자존심까지 되찾았다.

리버풀 수비의 핵으로 활약하며 팀의 2018-19시즌 UEFA 챔피언스리그 우승과 잉글랜드 프리미어리그 2위를 견인한 반 다이크의 수상 여부에 큰 관심이 향했으나 결국 FIFA는 메시지를 택했다.

메시는 지난 시즌 스페인 프리메라리가에서 36골을 기록하며 유러피언 골든슈를 폈다. 3위로 밀린 호날두는 이날 시상식장에 아예 모습을 드러내지도 않았다.

한국 대표팀의 주장 자격으로 투표한 손흥민은 1순위로 토트넘 동료인 해리 케인을 뽑았고 2순위로 반 다이크, 3순위로 호날두를



택했다. 파울루 벤투 감독은 1순위 반 다이크, 2순위 사디오 마네, 3순위 무하마드 살라(이탈리아 리버풀)에게 표를 행사했다.

올해의 남자 감독상은 리버풀을 이끌고 2018-19시즌 UEFA 챔피언스리그 우승을 견인한 독일의 위르겐 클롭이 펠 가르디올라(맨체스터 시티)와 마우리시오 포체티노(토트넘)를 제치고 수상의 영광을 안았다.

뉴스1

명품하는 행복의군민

설림화순 버스투어 2019. 3. 23(토)~11. 24(일) 매주 수, 토, 일요일

코스
 동부권 화순읍(이용대체육관 앞)→화순적벽→임대정원림→연둔숲정미→김삿갓동산
 →오지호 기념관 및 생가→화순읍
 서부권 화순읍(이용대체육관 앞)→운주사→조광조유배지→고인돌유적지→화순적벽 →화순읍

예약
 설림화순 버스투어 홈페이지 <http://tour.hwasun.go.kr>

현지탐승
 이서커뮤니티센터, 미 예약 방문객 현장 선착순(1대)